

26학년도 9평 생활과 윤리 Zola 분석

주의: Zola의 자료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세요~~

<차례>
I. 총평 및 전체 경향
II. 문항별 간단 정리
III. 기타 참고 자료

I. 총평 및 전체 경향

1. 문제 풀고 1컷 예상하면서 느낀 점

Zola(생윤은 김준호) [758219] · MS 2017 (수정됨) · 쪽지

🕒 2025-09-03 18:16:45 👤 조회수 419 😊 7

애매하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33604> 📄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딱히 없는데...
그렇다고 쉽게 주워먹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참고] 1컷 예상

아우우우 · 1162539 · 09/03 20:59 · MS 2022

등급컷 예상 가능할까요?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생윤은 김준호) · 758219 · 11시간 전 · MS 2017 (수정됨)

저는 학원측에 44랑 45 고민하다 45로 제출했음요^^

2. 감사 입장에서 보자면 수업한 내용에서 수정하거나 딱히 보완할 건 없었음.

Zola 생윤 2<선지의 모든 것> 마지막 강의를 9평 이후에 보강용으로 비워두었는데, 니부어를하기로 결정함. 니부어가 드디어 다시(!) 등장했음.

Zola는 개념 강의가 심화까지 커버되는 내용임. 만만치 않음.

어떤 분 쌤 개념 잘 듣고 있습니다! 복습하다 보니 새삼 느끼는게 쌤 강의가 진짜 밀도 높고 명강인 것 같네요.. 필기 복습하면서 이걸 왜 지? 싶어서 강의 다시보면 다 강의한 내용이네요 ㄷㄷ

또 다른 분 3월에 30점 중반대에서 헤메다가 5월에 선생님 만나서 광명찾았네요 Zola 감사합니다

3. 문항 분석 틀과 9평

(1) 분석 틀

생운 문제 유형	주제 또는 문항 형식
독해 주제	[주제] 삶과 죽음의 윤리(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 윤리/사랑과 성 윤리/청렴(직업 윤리)/정보 사회와 윤리/의식주 윤리/대중문화 윤리/갈등 해결/민족 통합 [문항 형식] 핵심쟁점/3단 논법/신문칼럼/X-Y-Z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죽음관 사상/직업관 사상/사랑 사상가/과학 기술과 윤리/예술과 윤리/다문화 모형/종교 윤리(엘리아데)/소통 윤리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지하)	윤리학 구분/동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서양 윤리 이론(가끔 예외)/국제관계론/평화론(갈통)/ <u>니부어(오랜만에 등장함)</u>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 (지상)	분배정의/교정정의/국가관(사계론)/시민불복종/자연윤리/칸트평화론/해외원조

(2) 9평 문항 분포

- * 대체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임. 개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향이 아님.
- * 정답률은 메가스터디 기준임.

생운 문제 유형	번호	배점	평균 정답률(%)	특이사항
독해 주제	7, 8, 15, 18	8	86	18 레건임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2, 6, 10, 12, 17	13	70	6평에 비해 정답률 10%p 이상 낮아짐. 독해가 까다로웠음. 6, 10, 17은 독해로 답 도출 가능 3점짜리 수가 늘었음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지하)	1, 3, 4, 13	9	86	4 독해·추론으로 가능 13 니부어(조심. 준킬러 역할 가능한 사상가임)
지식 비중 높음& 지식 수준 높음(지상)	5, 9, 11, 14, 16, 19, 20	20	60	6평 평균보다 올라갔음.

♥ 독해로 (어느 정도까지) 해결 가능: 총 20점: 2, 4, 6, 7, 8, 10, 15, 17, 18번(평균 정답률 76%)

[참고] 6평 자료

(2) 6평 문항 분포

* 대체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임. 개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향이 아님.

생운 문제 유형	번호	배점(점)	평균정답률(%)	특이사항
독해 주제	11, 12, 18	7	85	
지식반/독해반 (지식 수준 낮음)	2, 3, 5, 7, 9, 16, 20	15	77	지식정보다 독해형쪽임
지식 비중 높음 BUT 지식 수준 낮음(지하)	1, 4, 13	8	86	
지식 비중 높은& 지식 수준 높음(지상)	6, 8, 10, 14, 15, 17, 19	20	40	6-① 지식+간단 추론 15-L · r-바나나 19-γ-바나나

♥ 순수 독해 가능: 총 16점: 3, 5, 7, 11, 12, 18, 20번(평균 정답률 81%)

시험 직후 제가 오르비에 올린 간단평처럼 고난도는 없는데 그동안 쉬웠던 부분들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꺾고러운(?)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느낌적인 느낌도 통계적으로도 확인됩니다.

3. 바나나 강의는 유용하다

승리의 바나나 제거 수강자 50점

바나나랑 제시문 독해해서 풀긴했는데 하나 틀렸어요.. 근데 바나나랑 독해없었으면 더 틀렸을 거같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쌤! 남은 시간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할까요?

까요???? 번거롭게해드려서죄송합니다ㅜ.ㅜ!! 바나나는 많이 벅어 난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해서 개념은 한 번 더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 도 선생님 감사드려요ㅠㅜ!! 실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3. 1컷 예상(역대 비교 자료)

	6월	9월	11월 대수능
14학년도(첫 시행)	45	47	47
15학년도	43	47	45
16학년도	47	41	50
17학년도	44	43	47
18학년도	45	47	50
19학년도	45	50	50
20학년도	47	48	48
21학년도	47	48	50
22학년도	45	50	48
23학년도	47	47	45
24학년도	43	44	50
25학년도	45	47	41
26학년도	44	44(?)	

[참고] 최근 5개년 수능 1~3등급컷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1컷	50	48	45	50	41
2컷	47	46	41	47	37
3컷	43	44	36	43	32

II. 문항별 간단 확인

[주의]

기출 선지로 제시되는 것은 정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선지가 기출에 출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
 기출로 언급된 선지에 대한 정·오답은 님들이 직접 확인할 것.

※ 문제 출처 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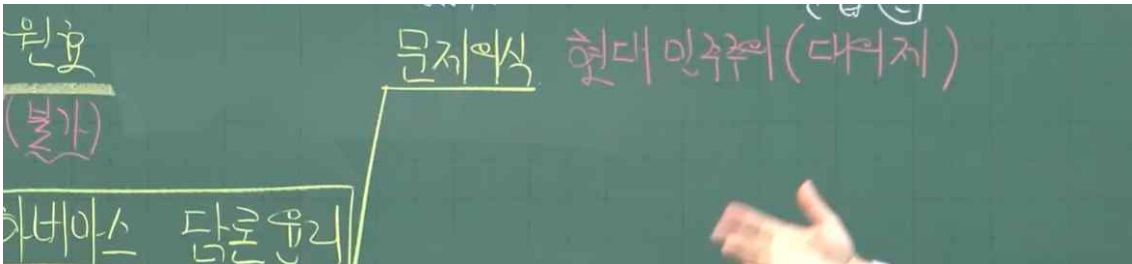
- 24-6-3 : 24학년도(23년 시행) 6평 3번
- 24-10교-3 : 24학년도(24년 시행) 10월 교육청 3번
- 24 ebs 수특: 24년 발간(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1. 생략

이 문제의 해설이 필요하다면님은 개념 공부를 해야지, 해설을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음.

2. 이 문제 틀리신 분들아 사상가 공부할 때 사상의 배경(썰) 알아두면 좋음. 그게 시대적인 배경이든, 철학적 배경이든, 인생사적 배경이든 상관없음. 어차피 사상가 뇌피셜 따라가려면 그 사상가의 문제 의식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Zola는 중요 사상가들은 반드시 문제 의식(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고 감.



필기는 뒤에 더 있는데....생략하고...

자료교재에 실린 어느 기사 내용 일부임.

자료교재 210쪽임.

[참고] 경향신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왜곡되고 억압된 현대인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찾는 데 한 평생을 바친 독일의 사회철학자다. 그가 찾아낸 해방의 비결은 의사소통, 즉 대화다. 그는 사라진 규범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줄 가능성을 의사소통이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의사소통에는 참여자들이 누구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규범이 있다. 의사소통이 성공하려면 말하는 이는 미래엔 교과서임.



○○구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SNS를 활용한 참여형 소통 시스템이 국민 통합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구 소통 동아리에는 관내 12개 동과 자생 단체 등 총 23개의 동아리에 1만 7,070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실시간 주민 불편 해소 및 개선, 미담 사례 등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 9. 5. -

➤ 위의 소통 동아리가 사회 통합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신문 기사의 사례처럼 소통과 담론은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담론(談論)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의사소통 행위로 주로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소통과 담론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갖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결정과 일방적 통보로 운영되는 사회는 불만과 갈등을 초래한다.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도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진다.

대충 님들이 배경만 알아도 선지 ① 나눔.

①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선지면 어떻게 공부하든 틀리면 안 됨. 더는 설명 안 함.

3. 동양 윤리는 공부해야 함. 틀린 분은 그냥 공부 안 한 거임. 정답률 86%임. 7등급이 맞추는 정답률임.

선지 ④ **을: 본성을 함양하고[養性]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성 보존, 본성 함양, 본성 확충, 본성 형성, 본성 변화.....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되면 님들은 비조선어 유저임.

 24 Zola [758219] · MS 2017 (수정됨) ·  **꼭지**
 ⌚ 2024-04-03 15:02:38 🗨️ 조회수 6,460 😊 0

[Zola 생윤] 형성≠확충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750661> 📄

조회수가 6,460인데 좋아요가 '0'인 글임. 조선어 유저에겐 읽는 것이 시간 낭비인 글임. 비조선어 유저들은 꼭 읽어 보시길...

4. 덕윤리(매킨타이어)와 의무론(칸트) 문제인데 답이 쉬움. 참고로 국어형으로도 어느 정도 답이 나눔.



갑의 '공동체 안'에서와 을의 '스스로' 이 부분을 통해 '공동체주의 vs. 개인주의'라는 구도를 짜서 국어적인 접근도 가능함.

단, 이 정도 문제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맞추어야 함.

선지에서 주의할 것들이 있음.

① 갑: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한다.

선지 ①에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겠음???????

아래 기출의 표시된 선지들이 틀렸는데 '원리(이론)'은 같음.

[23-수능] 아리스토텔레스(덕윤리)

도덕적 덕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문제 상황>

인성교육 전문가인 A는 아동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르려고 한다. 이를 위해 A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개발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보 기>

- ㄱ. 아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 ㄴ. 아동이 습관화를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하세요.
- ㄷ. 아동이 행복은 곧 옳고 그름에 관한 앎을 알도록 개발하세요.
- ㄹ.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개발하세요.

ㄹ 선지는 틀렸음? 왜???

[17-9] 아리스토텔레스(덕윤리)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에는 각기 대응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어떤 좋음[善]이 생기는 한 사랑하는 것이다. 즐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완전한 우정은 덕에 있어 닮은 선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이 경우에만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①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 ② 이익과 쾌락에 기초한 우정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이익과 쾌락만 추구하는 이들은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 ④ 유덕하지 못한 이들의 우정에서는 어떠한 선도 생겨나지 않는다.
- ⑤ 모든 우정은 행위의 좋음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답 ①(68%)

선지 ⑤는 틀렸음. 왜????

아래 윤사 문제는 보너스임. 표시된 부분은 틀린 선지임.

[22-9. 윤사]

14.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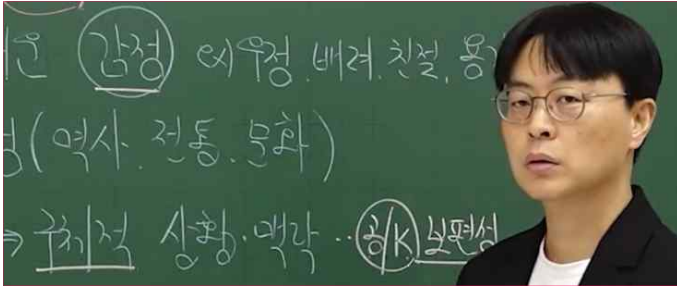
- ① 중용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 ②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품성적 덕이다.
- ③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춰야 할 품성적 덕이다.
- ④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 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계발된 품성적 덕이다.

답 ⑤

선지 ②는 틀렸음. 왜????

이 정도 했는데도 모르겠으면 덕윤리 공부 다시할 것. 지금 매킨타이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님은 덕 윤리의 특징을 모르고 있는 것임.

힌트는 아래 강의 필기임.



선지 ③이랑 ④ 별표 치셈.

선지 ③과 관련된 질문임.

칸트에 따르면 준칙을 집합 A라 하고, 법칙을 집합 B라고 하자. A와 B의 관계 알지?

선지 ④와 관련된 질문임.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를 집합 A라 하고,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집합 B라고 하자. A와 B의 관계 알지?

모르면 아래 유튜브 참고해 볼 것.



<https://www.youtube.com/watch?v=M0u8mqY0hD8&t=37s>

님들이 이걸 알면 아래 문제를 풀 수 있음.

자료 교재 40쪽에 있는 윤사 기출임.

ㄷ 판단할 줄 알아야 함.

74[23-9-13, 고난도 But 바나나]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답은 아래 확인.

74) ④ 8% ↓ 5% ↓ 24% ↓ 47% ↓ 16% ↓

☞ Zola <보기> ▷ 선택하신 분들 [Zola 생운 O-바나나 제거 특강] 다시 들길 바람. 개념 강의(Zola 생운 1)도 잘 보길 바람. ▷ 관련 바나나식 풀이를 오르비 및 유튜브에 올렸음. '23 9 13 윤사(zola 바나나 제거)' 검색해 보셈. ↓

<https://www.youtube.com/watch?v=LYFhCH2EVr8> ↓

수강생 분들은 자료 교재 37쪽 63) 꼭 확인! (일부만 공개. 유료 자료를 다 퍼줄 수는 없음)

63)[Zola 칸트 뇌피셜 연습] 칸트임. OX 하셈. ★★★★★★★★★★
①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제공할 수 있다.(18-수능, 20-6, 윤사)
② 행복의 원리는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18-수능, 20-6, 윤사)
③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중략.....
⑩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25-9, 윤사)

5. 선지에서 남들에게 쓴소리 할 선지는 ④임.

선지 ①은 남들 입장에서 헛갈릴 수 있을 여지가 있음.

그런데...

갑은 칸트이고 을은 베카리아인데, 현강에서 을을 루소로 푸신 분들이 여럿 있어서 제가 현강에서 무릎 꿇었음
ㄱ. Zola 강사가 어떻게 병신처럼 가르쳤으면 성장한 정상적인 고등 지적 생명체인 수강생들이 을을 루소로 풀까? 이걸 선생 잘못임. 죄송합니다.

but 기출로 아래처럼 여러 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의사와 일반 의지를 헛갈려서 을을 루소도 풀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음.

아래 자료 확인.

베카리아 제시문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법은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
기출 제시문과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9] ④ 갑과 을 :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 [23-수능] 법은 각자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으로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생명의 포기는 그 최소한의 몫에 포함 되지 않는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 [24-9]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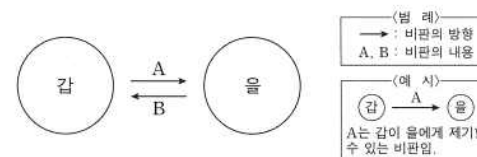
선지 ④ 틀렸으면 아래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면함.

질문 1. 기출 왜 하나?

질문 2. 기출 몇 번 하나?

질문 3. 님이 공부를 했는데 님 머리 속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공부 한거야?

질문 4. 님이 공부를 해서 님 머리 속에 있는데, 활용을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공부 한거야?

26-9	25-9
<p>(가) 갑: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이기를 그친다.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형벌의 법칙은 정인 명령이다.</p> <p>을: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법은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p> <p>(나)</p>  <p>①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A: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써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B: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④ B: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지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⑤ B: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p>	<p>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p>갑: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p> <p>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p> <p><보 기></p> <p>ㄱ.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ㄷ.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혹시 이 두 문제를 보고 왼쪽 문제는 을이 베카리아이고, 오른쪽 문제는 을이 싱어인데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분석서 버리고 저도 버리셈.

저는 그런 식으로 사상가 바나나가 되지는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지 ④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알아야 하고 알 수 있음.

참고로 교육청에서 여러 번(?) 나왔음.

24년 10월	ㄴ. 갑: 범죄자의 의도를 제외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24년 5월	ㄷ. B: 형벌의 경중은 범죄를 저지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교육청은 이 선지를 왜 냈을까?

그건 이 선지가 이 부분의 기출이기 때문임.

20학년도 수능 14번	<p><보 기></p> <p>ㄱ. A: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ㄴ. B: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ㄷ. B: 과도한 형벌은 효용 원리와 사회 계약 모두에 위배되는가?</p>
--------------	--

이 정도로 평가원 기출에서 얘기하고 이후에 교육청이 여러 번 '반복'시켜주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 더. 베카리아 아래 문장들 외워! 더 있는데 유료 강의라서 퍼줄 수는 없지만,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외우든 이해하든 알아서 하시고 머리 속에 저장(input), 시험장에서 활용(output)할 수 있게 하세요!!!

[Zola] 베카리아(1) OX

1.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답은? ● 모두**
2. 사형은 그 어떠한 권리에도 의거하지 않는다. ○
3. 잔혹한 형벌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
4.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형벌이 있다. ○
5. 범죄의 **유일한** 타당한 척도는 그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
6. 공공복리와 개인의 복리가 별개인 것인 양 구분하는 것은 공리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 탓이다.
7. 쾌락과 고통은 감각을 부여받은 존재에 있어 행동의 유일한 동인(動因)이다.

5번 '만' 알았어도 선지 ④는 안틀림. '유일한' 척도라고 하잖아.

선지 ①도 기출의 연장선임. 여러분 입맛에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선지 ① 푸는 데 도움되는 기출 선지들은 아래와 같음. 서로 비교해 보세요~~ 정·오답은 **님들이 직접 기출 확인할 것.**

26-9-5	①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은 간과한다.
25-9-15	ㄷ. B: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18-6-19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유일한 형벌이 존재한다.

아마 정오 판단에 필요한 지식이 서로 연관될 거임.

Zola는 어떤 댓글에서 선지 ①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음. Zola피셜을 굳이 님들이 이 시점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참고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표현은 기출에 있음.

아래 기출의 해당 표현을 어떻게 푸셨는지 자신의 뇌피셜을 확인해 보시길 바람.

[21-9-13]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을: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① 갑: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 ②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 ③ 병: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 ④ 갑, 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을, 병: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선지 ③은 수업 시간에 베카리아 두려움/공포 얘기 나오는 문장 다루었음. 왜냐하면 기출로 여러 번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정·오답은 님들이 직접 기출 확인할 것.

26-9-5	③ B: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20-수능-14	ㄱ. A: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21-9-13	②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23-9-15	② 을: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24-9-9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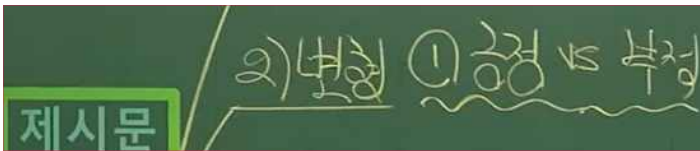
6. 독해력 약한 친구들이 털린 문제 중의 하나임.

매력적인 오답이 ②인데 ②는 제시문에서 확인이 됨.

제시문	곧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를 자기에게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의 합일은 사랑의 미성숙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선지	②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하다.

정답인 ④는 '부정'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님들을 헛갈리게 했음.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제시문-선지 작성 원리 얘기해줬음.



제시문	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고 단절된 상태인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게 되지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망이고, 이 욕망은 인간을 합일케만 모든 합일이
선지	④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시문의 맨 마지막 가지고도 ④는 어느 정도 끼워맞춰지지 않을까???

제시문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지	④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

대충 이리함.

이 정도 독해가 실패한 것은 좀 아쉬움.

7. 넘어가겠음. 메가 정답률 95%. 스트레스가 많으면 틀릴 수 있음. Zola는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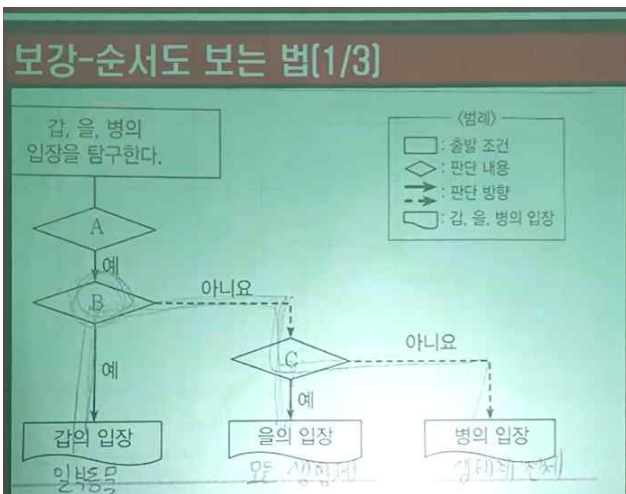


8. 넘어가겠음. 메가 정답률 94%

9. 소거법 이용하면 거의 10초 컷할 수 있는 문제임. 그리고 여러분이 기출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함.

일단 ㄹ.

순서도 문제는 뒤에서부터 풀면 편하다는 얘기는 바나나 특강에서 했음.



ㄹ 선지는 5번의 선지 ④의 연장선상임.

ㄹ. C: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26-9	25-9
①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A: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써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B: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④ B: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보기> 가.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을: 국가 간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다.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라.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위의 세 선지 감을 잡았나요?

ㄹ에서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것을 '다수가 공리 증진을 의도해서 합의'한 것으로 바꾸면 간단 해결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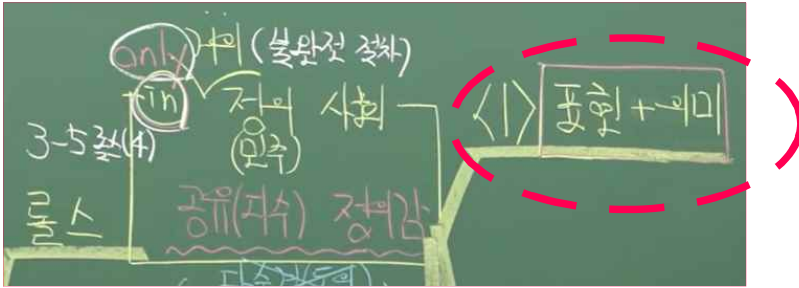
물론 그렇게 바꾸지 않고 아래처럼 판단해도 됨.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것도 '결과적으로 공리성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걸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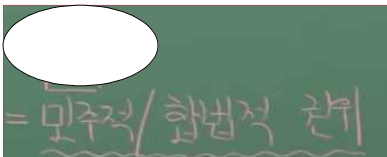
다음으로 ㄱ 선지는 너무 간단함.

ㄱ 선지	ㄱ. A: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23-9-8	ㄴ. 을: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가능하다.

Zola는 분명 수업 때 얘기했음. 롤스-시불-최후의 수단...이런 것 외우고 있으면 님들 삽질하는 중일 거라고.



Zola는 분명히 암기 <1>이 [표현+의미] 여기를 외워야 한다고 했음.



어차피 기출 '표현'이니까 '의미'도 누구한테 배웠어도 알테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음. 모르면 개념서나 개념 강의, 개념 노트 꺼내서 공부를 하세요.

혹시 ㄴ 선지의 '모든'이라는 용어에 말렸다면 님은 워딩 바나나일 가능성이 높음. 이런 분들은 개념 공부를 남들 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함. 사상가는 지식이 있어도 응용의 범위가 좁지만 개념은 일단 있으면 응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임.

이 선지를 저항'권'이라는 개념에 적용해 보면 시민 불복종도 저항'권'의 일종임. 그러면 저항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음.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나? 수도권과 있고 지방은 없나? 부자만 있고, 가난한 자는 없나?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사상가 지식이 막혔을 때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념임. 생운 선택자들 중에 사상가'만' 열심히 하고 개념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함. 국어나 수학을 열심히 해라. 그래야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음.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Zola는 '전부'라고 한 적 없음. 말을 만들어 내지는 마시구요.

여튼 생운에 비드비드거리는 입시 인생을 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10. 내년 바나나 특강에 사용될 문제임. 님들의 바나나 사례들 여기 저기서 많이 수집해 두었음...ㅋㅋㅋㅋ 틀린 분들은 내년에 바나나 제거 특강 들어보시길 바람.

독해+1단원 윤리 이론 기본 개념으로 소거법으로 정리되는 문제임. 이 문제를 틀리고 칸트 통수니, 예술관 어디를 봐야하느냐고 묻는다면 님은 영원히 공부하는 잘하면서 문제는 못푸는 하수가 될 것임. Zola 해설 잘 보길 바람.

일단 님들이 조선어 유저이면 ㄷ이 포함된 ②, ③, ⑤는 안해야 함. 이걸 안 해야 하는 거임.

그런데 9평 응시생 중에서 비조선어 유저가 47%(메가 추정)~55%(ebs 추정)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건 같은 경쟁자 입장에서는 꿀빠는 것임. 알아서 틀려주니까. 그런데 님들이 틀리는 쪽이 되면 안 됨.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여기서 더 설명할 것 있나?????

<보 기>

- ㄱ.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 ㄴ.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 ㄷ.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 ㄹ.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렇게 해서 ㄷ을 날리면 선지 ②, ③, ⑤가 날아가는데....뭐하는 거지?? 서로 바나나 확인하는 거임???????

생윤 10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531787>
 3번맞나요??

저는 3번함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Zola(생윤은 김준호) · 758219 · 2분 전 · MS 2017 (수정됨)
 국어로 다시 풀어보세요...국어로 답 나눔.
 바나나 강의 안 들으셨으면 꼭 들어보시길.....

ㄷ을 해결했으면 ㄹ로 가면 됨.

ㄹ.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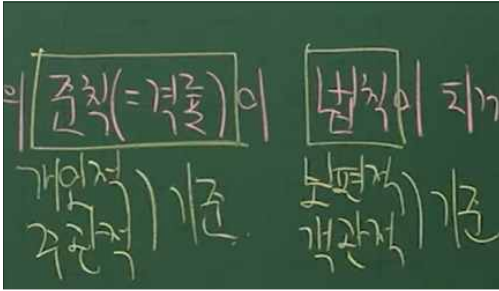
ㄹ 선지는 칸트 의무론 지식으로 빠져 나올 수 있음.

도덕 판단은 '객관적'임.

그래서 미적 판단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임. 이렇게 빠져 나오면 됨. 그만임.

그런데 님들 중에는 미적 판단이 자유로운 판단이다/아니다를 가지고 따지고 있음. 하....답답하다...ㅏㅏ

도덕 판단이 객관적인 것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지는 마라. 적어도 용어(정의, 의미)를 중시하는 샘들은 아래처럼 정리해 준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개념 강의 신청해서 지식형 주제들만 발췌해서 들어. 허접한 지식으로 기출이나 실모 풀어봤자 님 실력은 그 자리임.

선생님 공지사항

[Zola] 개념 필수 강의 목록(지식 정리 필수)

• 선생님 | 김준호 • 작성자 | Zola(생윤은 김준호)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아래 강의 지식 정리 필수.
시간이 없으면 아래 강의 정리+기출만 하고 다른 것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튼 이것으로 답이 나와 버림. **시험장에서는** 더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없음.

참고로 ㄱ 선지는 독해로만으로도 추론은 가능하고, 지식이 병행되면 더 쉽게 판단가능할 듯.

ㄱ.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일단 순수 독해형으로 보자면

'개념 없이도'는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보편적 만족'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 이 부분을 가지고 추론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참고로 보편성은 지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음. 미와 선의 공통점에 보편성이라는 지식있어야 함. 왜냐하면 그걸 배웠음. 기출이니까! **정·오답은 님들이 직접 기출 확인할 것.**

[24-수능-10] ②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보편화될 수 없다.

ㄴ 선지는 독해임. 그냥 넘어갈게.

11. 이 문제 보면서 지식 없는 분들보다 지식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말리겠다는 생각을 했음.

우선

④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

이걸 불완전한 지식으로 롤스는 절차만 있으면 되지 근거(기준)은 필요없지라고 해서 제기는 순간 님 생운은 날아감.

우선 롤스 원전은 이러함.

[자료교재 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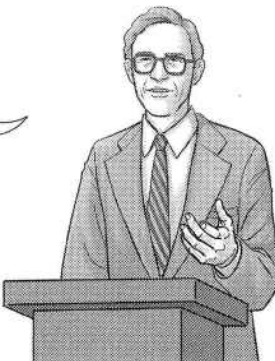
(5) 절차적 정의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으며, 동시에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경우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있으나 이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즉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해서 그릇된 결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절차가 결과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노름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

님은 기준=근거로 생각하게 되면서 말리게 되었음.

그런데 이건 Zola 뇌피셜인데, 평가원은 나름 착한(?) 애들임.

제시문을 보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제시문에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판단이 된다고 했으니 절차를 '근거'로 바꾸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음. 다시 말해 오히려 어설픈 지식으로 인해 정답이 오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

Zola는 롤스가 겁나서 어지간하면 원전을 보여주면서 정리해줌. 필기도 분명 '독립기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확인됨.



어른 제시문으로 판단 가능한 독해형 선지였음. 평가원 친절하면서 졸라 압쌘함....ㅋㅋㅋ
 덧붙임. 위 제시문에 불완전 절차랑 순수 절차 잘 알아 두셈. 불완전 절차는 시민 불복종에서 또 나올거임.

다음으로 선지 ①이 지식은 있는데 성격 급한 분들이 말리기 쉬운 선지임.
 롤스는 복지 국가가 아닌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지식이 있음.
 일단 님 지식은 맞음.
 근데 선지 ①이 그걸 묻는 선지인가???????????

①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님 지식 속에 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모두가 이익이 되는 사회이지 않나?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선지 ①과 맞지 않네.
 또 선지 ①의 주어인 '원초적 합의'를 '원초적 합의 당사자'로 들이대어서 합의 당사자는 상호 무관심하니까...어찌
 고 저찌고...이렇게 판단한 분들도 꽤 있음.
 헛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눈에 보이는 표현에 집중하시길 바람. 자꾸 선지를 상상으로 만들어 내지는 마
 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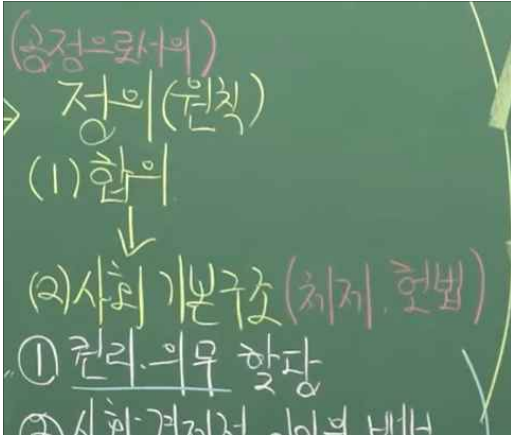
그리고 선지 ③은 틀리신 분은 개념 지식 약한 분들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아는 것은 적든가, 아니면 많아도
 체계가 없는 분들임.

③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단어 보는 순간 정의 원칙이 떠올라야 함.
 [자료교재 88쪽 (3) 제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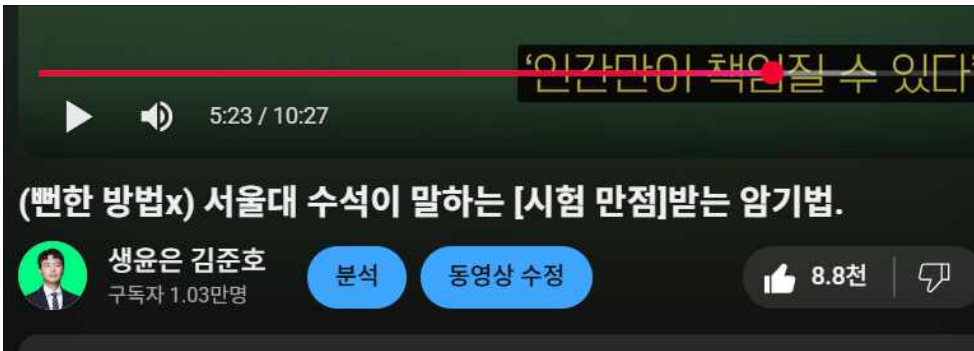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미 처음에 합의된 원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p.47) ...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그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자료에 정의 원칙은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고 나옴.
 Zola의 롤스 강의 기준으로는 암기 포인트 <1>에 있음.



그냥 외우지 말고 지식에 체계-순서-논리-구조 이런 것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들???

Zola 유튜브에 아래 영상이 있음. 좋아요 거의 9천 가까이 됨.



그리고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음.

@폴오토-s3l 2주 전
 토익독해공부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왔었는데 이거때문이었구나.. 문장의 흐름 목적을 파악하려고 행위자체가 글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내용이 머릿속에서 안지워지는거였어
 그래서 지문 읽고 보기를 봐도 어느순간부터 옳고 그름이 느껴지더라고 예전에는 다시 읽으려갔었는데ㅋㅋ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

@미로-q4g 1개월 전(수정됨)
 결국 서울대생분들 공부법 보면 의미 단위로 나누고, 구조 자체를 파악해서 통째로 암기하는 걸로 귀결되네요, 고맙습니다!

모든 공부가 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음. but 뭔가 어려운 파트들은 이게 핵심임.

마지막 ㉔도 주의해야 함.

롤스 가상에서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함. 이걸 쌤들 강의 잘 확인할 것. Zola도 구분하는 포인트 (point) 분명 언급했음. 근데 이걸 나름 가르치는 분들의 노하우나 센스이기 때문에 님들 가르치는 분들 센스(노하우)를 확인하길 바람.

여튼 아래 두 제시문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람.

[자료교재 90쪽]

(8) 나는 지금까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해왔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정은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mutually

[ebs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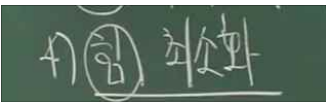
⑤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원칙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보고,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래 저래 롤스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틀렸으면 좀 뻑치는 문제였음. 예방 주사 잘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12. 이 문제는 정답률이 95%임. 정답률이 설명이 필요없음을 보여주는 듯함. 단, 작수는 죽음관 망했었음.

13. 반갑다!!! 니부어ㅏㅏ 매년 니부어 나오길 바랬는데, 드더 나오네. 공부하시면 됨. 킬러급은 아니지만 준킬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 참고로 정답되는 선지는 아마 모든 강사분들 필기에 있을 것 같음.

④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최선이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선지 ①을 선택하신 분임.

한다.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기 때문이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①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메가 12%, ebs 13%가 있는데 이분들 정체가 뭔지 궁금함??? 아마 그냥 평가원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생각함. 평가원 싫어하는 님들 마음 100% 이해함.

14. 바나나는 영원할 것 같은 안타까움을 보여줌ㅏㅏ 심지어 <보기> ㄱ은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름.

ㄱ. A: 꽤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ㄱ 틀렸으면 제발 바나나 제거 특강 들으시길. 이게 싱어 따질 때가 아님. 하나 물어 봅시다.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 가는 성인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요?????? 이걸 싱어는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 자체가 바나나라는 거임. 바나나 제거 특강 3강임. 엄마랑 비둘기 얘기해줬음. 이걸 설명 안 하겠음.

3강 바나나 제거 2(과목의 특성 이용법)

(나)

<법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ㄴ. B: 종(種)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 언마 -
 비둘기 -
 (A)

다음으로 ㄴ 선지임.

ㄴ. B: 동물 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이건 인간 중심주의에만 해당됨. 이 선지 보는 법은 아래 기출로 출제되었음. [22-수능-14]

<보기>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ㄷ.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ㄹ.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ㄹ 선지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본인 뇌피셜 확인하시길 바람.

ㄷ 설명은 생략.

ㄹ은 오개념 있는 분들이 있음. 레오폴드는 전체론이니까(정확한 지식) 개체의 권리 인정하지 않는다(오개념)... 개념을 간단히 교정해 드리면 개체도 전체의 일원으로서의 권리가 있음. 기출로도 출제된 내용임.

[25-9-6]

6.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을: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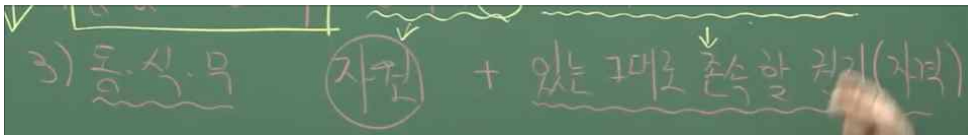
— < 보 기 > —

ㄱ.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ㄷ.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ㄹ.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ebs 해설]

정답 해설 : 갑은 레오폴드, 을은 칸트이다. ㄱ. 레오폴드는 인간은 토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ㄷ. 레오폴드는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이다. 정답 ②

Zola는 개념 강의에서 레오폴드 지식을 1)⇒2)⇒3)으로 연결시키면서 설명하고 필기했음.



15. 이 문제 ebs 정답률 68%임. 이 황당한 정답률은 뭐지???????

일단 핵심 쟁점은 100% 독해임.

게다가 이 문제는 다문화 정책 지식만 있어도 간단히 풀림. 설명 생략함.

16. 보기 ㄹ 판단 틀리신 분들은 자기 반성 '처절하게' 해야 함.

ㄹ. 갑과 을: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한다.

현실주의(모건소) '도덕X'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일단 오개념 하나 장착하고 있음.

현실주의(모건소)는 '도덕X'가 아니라 '도덕↓(than 이상주의)'임.

그런데 이런 오개념이 있더라도 제시문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왜 제시문을 안 보는 거임???

님 머리 속의 지식이 제시문보다 정확하다는 것임????

갑: 국제 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다음으로 ㄱ 선지임.

ㄱ. 갑: 국제 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이 선지는 개념으로도 해결되고 아래 기출로도 쉽게 해결됨.

[21-수능-14] **ㄴ. (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이다.**

ㄴ 선지 틀리신 분들이 아쉬운 분들임.

ㄴ. 을: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세계 시민법’ 관련 내용은 기출로 여러 번 나왔음.

[22-수능-4] **ㄷ. 을: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일단 ㄷ 선지는 맞는 선지임.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는 ‘공화국 국민에게만’이라는 조건인가???? 아니면 그런 조건을 포함하나???? 님들은 이 선지를 어떻게 풀었음???

하나 더.

[23-9-16] **ㄴ. 갑: 세계 시민법은 인권 보장이 아닌 영구 평화를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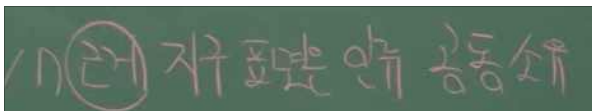
이 선지는 틀린 선지임. 아래가 ebs 해설임.

[오답피하기]

ㄴ. 칸트에 따르면 영구 평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과 같은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세계 시민법은 ‘인권 보장’이 맞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공화국 국민만’의 인권인가????

칸트는 세계 시민법은 지구(표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보았음. 수업 때 설명과 필기해 두었으니 참고하면 됨.



개인적으로 ㄷ이 불만임. new face여서 기존의 출제 관행대로 이 내용을 몰라도 선지 조합으로 답이 나오게끔 했음.

그래도 아무리 출제 기관 마음대로라지만 여기 저기 막 긁어오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빠치기는 함. 해당 선지 출처는 아래에 적어 두었음.

을: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 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

<보 기>

- ㄱ. 갑: 국제 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 ㄴ. 을: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 ㄷ. 을: **합법적 국제 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일단 선지의 '합법적 국제 관계'는 평화 상태 혹은 국제 연맹으로 연결하면 됨. 칸트는 평화를 법적 상태로 보았다는 것은 강의에서도 언급했음.

[자료 교재 220쪽] 원 자료 교재에는 밑줄은 안 그어져 있음.

(4) 순전히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가진 국가들의 연방 상태는 그 국가들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상태이다. 비록 무한히 진보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법적 상태를 실현하는 일이 의무라면,

그런데 ㄷ 선지의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 문제인데, 이건 출제가 영구 평화론이 아님. 그래서 님들은 평가원이 정답 선지 하나 던져줬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길 바람.

출처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임.

하지만 꼭 기억해야할 것은 new face가 출제가 되면 그건 평가원이 적당히 알아서 정답이 도출될 수 있게 선을 지킨다는 것임. 평가원은 나름 지키는 선을 잘 지킴. 그게 사설과의 차이점임.

17. 이 문제는 설명 잘 읽어 보셈.

우선 독해.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한다.

①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첫 문장을 보고 선지 ① 고르면 됨.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음.

그런데 이건 사후적 풀이이고 현장에서는 이리기에선 선지 ⑤가 너무 매력적었음. ㅋㅋㅋㅋ

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2가지 방법을 제안하니 둘 중에서 최소 하나는 하시길 바람. 그래야 님들이 수능장에서 통수를 그나

마 최소화할 수 있음.

처방 1. 기출 제시문!

자 Zola가 이 부분은 개념 공부 후에 마더텅 같은 문제 많은 기출 문제집의 해설을 보고,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두 사상이 문제 확인해서 개념들 제시문과 선지 쪽쪽 훑어보는 보면 된다고 했음.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서 반복 공부가 자동으로 됨.

[23-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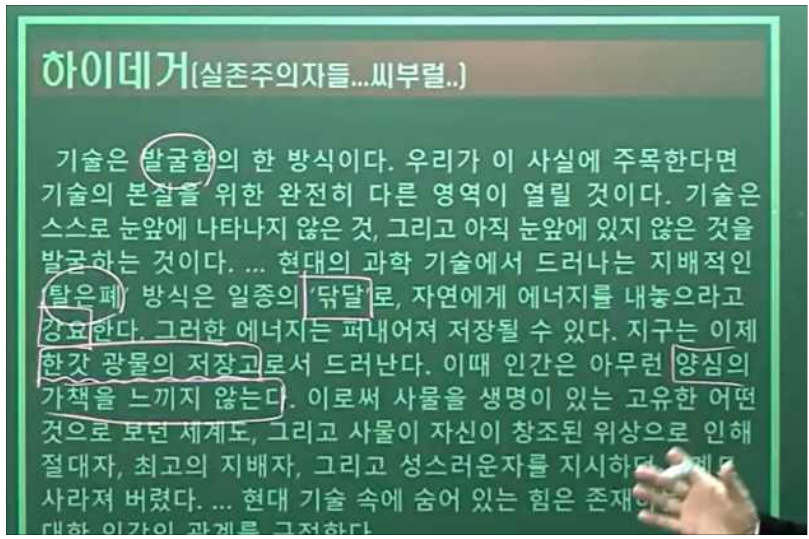
7. 갑 사상이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을: 기술은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탈은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되어진다.

- ①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불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⑤ 기술은 사물의 참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주는 것임을 간과한다.

과학 기술 논쟁에 나오는 사상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가 있는데 둘 다 실존주의자들임. 실존주의 글들이 난해함. 그래서 눈팅 많이 해두는 것이 좋음. Zola 개념 수업에서 제시문 같이 강의한 것이 심심해서가 아님.



처방 2. 바나나 2강 확인

바나나 2강에서 '그 자체의 선/내재적 가치 vs 도구적 가치/외재적 가치' 설명했음.

그러면 선지 ⑤를 다시 보자.

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본질은 내재적인 것임? 외재적인 것임? 내재적인 것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찾아보면 아래임.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한다.

바로 기술 '그 자체'가 곧 기술의 '본질'임.

그러면 제시문은 기술 그 자체=본질은 선/악이 아니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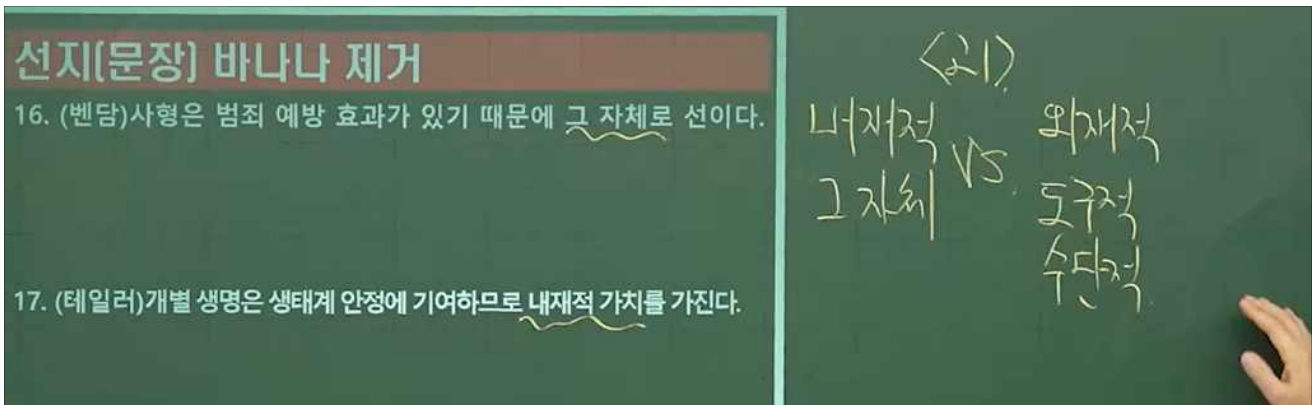
그런데 선지 ⑤는 기술 그 자체=본질은 선이나 악이 될 수 있다함(선이 된다/악이 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음.

바나나 강의 2강 확인해 보셈.

특별 제공이므로 누구나 공짜로 들을 수 있음.

Zola 생운 O <바나나 제거 특강>	
▶	[특별제공] 1강 바나나의 정체+바나나 성향 테스트
▶	[특별제공] 2강 바나나 제거 1(선지 보는 법) 맛보기



18. 2단원의 동물 실험(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실제로 4단원의 자연과 윤리(환경 윤리)가 2문제 나오는 풀림. 그러면 둘 다 킬러가 될 수도 있음.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풀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풀이를 위해 꼼꼼히 생각해 보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선지라고 생각됨. 선지 ⑤의 '모두'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림 but 굳이 따질 생각은 없음. 나보다 문제 제기 잘 해주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들을 이용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19. 이 문제는 윤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내용임.

갑, 을 사상가가 누군지 모르면 심각함.

을 제시문 잘 알아두셈. 킬러 선지가 들어가 있음.

사상가 조합이 홉스-루소인데, [23-6-19, 윤사] 문제 풀어보면 좋음. 아래에 실어 두었음.

갑이 홉스, 을이 루소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공부를 하시길 바람. 제시문 내용은 명확함.

선지를 보자면 사상이 필요없고 사회계약론 개념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선지가 2개 있음(어쩌면 3개?).

ㄱ과 ㄷ임.

ㄱ 선지.

ㄱ. A: 사회 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가 틀렸음. 자연 상태는 자유로운 상태임. 이걸 계약론의 기본 전제임.

홉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인데 자유가 있다고 물어보면 홉스 공부 다시 해라. 홉스 논리로는 자유가 있어서 전쟁 상태가 되는 거임. 개같은 놈들을 자유롭게 두니까 개판되는 거임.

홉스의 자연권 설명 부분임. 알아 두셈. 자료 교재에 있는 제시문임.

(5) '자연권(right of nature)'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liberty), 즉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p.147) ... 자유란 본디 저항의 부재를 뜻한다. 여기서 저항이란 운동의 외적 장애를 말한다. ... 자유인이란 '자신의 힘과 지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인간'을 의미한다. ↴

다음으로 ㄷ 선지.

ㄷ. B: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이거 틀리는 분들은 좀 바나나 기질 강한 분들임.

님들아 계약할 때

평등하게 계약할래, 불평등하게 계약할래?

자유롭게 계약할래, 부자유롭게 계약할래?

이성적으로 계약할래, 비이성적으로 계약할래?

굳이 고민해야 함??????

이렇게 정리해도 아직 답은 안 나옴.

ㄴ과 ㄹ이 남음.

어느 것이든 기본 지식으로 해결은 될 것 같음.

Zola는 ㄹ이 편함.

ㄹ부터 봅시다.

ㄹ. C: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홉스	자료교재 125쪽 (8)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때는 다 까닭이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반대 급부가 자기에게 돌아오거나, 다른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 행위이고, 모든 자발적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 누구나 죽음·상해·투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 힘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저항할 권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 만일 주권자가 어떤 사람에게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루소	자료교재 129쪽 (2) 사회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조항에 귀착된다. 그것은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기 자신을 전체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수업 때 홉스는 '거의' 몰빵(표현이 이상하지만 내용 설명까지 했으니 수강생은 오해 없을 것임), 루소는 '완전' 몰빵이라고 필기했음.
 그래서 ㄹ이 틀림.
 이러면 답이 나옴.

그리고 ㄴ도 봅시다.

ㄴ. B: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홉스	자료교재 126쪽 (14)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모든
루소	자료교재 129쪽 (1) 제시문 일부 결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결합으로 흠어져 있는 힘들을 뭉쳐서 하나의 동기로 삼아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애는 기출임. Zola는 문제 교재와 자료 교재에 윤사 기출 여러 개 같이 실어 두었음. 다들 연습해야 함.
 [23-6-19, 윤사]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p> <p>을: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p>
(나)	

<보 기>

ㄱ. A: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ㄴ. B: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ㄷ. B: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ㄹ. C: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bs 해설입니다.

19. 루소와 홉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루소이고, 을은 홉스이다. 루소와 홉스는 주권자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루소와 홉스는 국가 형성의 근거와 주권의 근거를 인민의 동의라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루소와 홉스는 국가를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라고 보았다.

ㄹ. 루소와 홉스는 인간이 사회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생명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20. 이 문제는 쉽게 출제되었네요.
 갑-루스, 을-싱어 파악하는 것은 쉬울 듯.
 보기를 봅시다.

<보 기>

- ㄱ. 갑: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이다.
- ㄴ. 갑: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을: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
- ㄹ. 갑과 을: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ㄱ. 롤스는 원조 목적이 국가의 복지/부 향상이 아니지. 그래서 ㄱ을 제끼면 ③, ④, ⑤가 남는데,
 ㄴ을 보면....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를 하니까 ㄴ을 제끼면
 답이 나오네요. 끝!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ㄱ과 ㄴ 판단이 틀렸으면 이걸 너무 기초적인 지식 판단에서 틀린 것임. 모든 쌤들의 개념 강의로 ㄱ과 ㄴ은 판단가능할 듯.

ㄷ은 조금 추론을 해야 하는데.

(6)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퍼센트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출 계획을 다소 수정하기는 해도 그런 수정의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 새 옷이나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또는 집을 새롭게 꾸미지 못한다고 남들이 자신을 깔보지 않을까 싶어 돈을 쓰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소비할 좋은 이유가 생겼다. 이제 돈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교재의 이 부분인데...**솔직히 남들이 남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면 뿌듯함...이런 것 생기지 않았나요?? 남을 도와준 적이 없다면...내년에 대학 가시면 좀 도와주세요. 제발....**

ㄹ은 기출입니다.

[23-수능-18]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이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절대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이다.

<보 기>

- ㄱ. 갑: 공적 정의권이 규제하지 않는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 ㄴ. 갑: 원조는 원조 대상이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ㄷ. 을: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에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이 '기출' 문제를 남들이 어떻게 풀고 정리했는지는 각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II. 참고 자료

[참고] 메가스터디 정답률

번호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1	2	3	4	5
1	2	94%	1%	94%	2%	2%	1%
2	1	78%	78%	11%	2%	2%	7%
3	4	86%	6%	1%	4%	86%	4%
4	2	84%	2%	84%	3%	11%	1%
5	3	38%	17%	12%	38%	25%	8%
6	4	72%	2%	22%	2%	72%	2%
7	1	95%	95%	1%	1%	2%	0%
8	2	94%	1%	94%	1%	1%	3%
9	3	75%	5%	4%	75%	10%	6%
10	1	41%	41%	5%	39%	12%	3%
11	4	59%	9%	9%	10%	59%	13%
12	1	95%	95%	1%	2%	1%	1%
13	4	78%	12%	3%	2%	78%	4%
14	3	62%	12%	13%	62%	6%	7%
15	5	80%	1%	3%	15%	2%	80%
16	5	52%	7%	4%	12%	24%	52%
17	1	62%	62%	2%	7%	2%	27%
18	5	74%	2%	4%	18%	2%	74%
19	3	58%	5%	9%	58%	13%	14%
20	5	74%	1%	2%	7%	15%	74%

[참고] ebsi 오답률 15

순위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3	2	30.7	①	69.3	15.3	2.9	3.1	9.4
15	4	24.1	②	2.2	75.9	4.5	16.2	1.1
1	5	71.4	③	14.5	17.2	28.6	30	9.7
9	6	37.2	④	2.8	29.8	2.8	62.8	1.7
11	9	36	③	7.5	4.7	64	16.2	7.6
2	10	68.6	①	31.4	7.4	41.2	13.7	6.4
7	11	48.9	④	6.9	13.7	11.7	51.1	16.6
14	13	25.1	④	13.1	3.2	2.8	74.9	6
4	14	53.4	③	21.6	18.5	46.6	6.4	6.8
12	15	31.3	⑤	1.4	4.1	22.5	3.4	68.7
5	16	53.1	⑤	5.2	5.4	17.7	24.9	46.9
6	17	52.8	①	47.2	2.7	12	2.8	35.3
10	18	36.3	⑤	2.4	4.4	26	3.5	63.7
3	19	53.5	③	5.7	10.2	46.5	17.9	19.7
8	20	38.2	⑤	1.6	3.6	10.3	22.7	61.8

[참고] 예상 등급 컷

(1) ebs

생활과윤리		평균: 25.59 표준편차: 11.63		
등급	작년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최고점	50	50	71	98
1	47	44	66	96
2	45	41	63	89
3	42	36	59	78
4	35	30	54	61

(2) 메가스터디

생활과윤리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71
1등급	44	66
2등급	41	64
3등급	36	59
4등급	30	54

[추천 상담 사례]

선생님...정말 감사드립니다 TTTT

사탐런 하고나서 이번 9모에서 17번 틀려서 48점 나왔습니다!!!!

물론 9모 점수가 수능까지 이어질거란 보장도, 그러한 믿음 또는 생각도 1도 안가지고 있지만요!! 그래도 너무 기뻐합니다..

사탐 처음 시작하면서 이곳 저곳 다 돌아다니며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는지 한달가량 고민하다가 우연히 오르비에서 선생님이 올리셨던 글을 보게 되게 신의 한수였어요..

사탐의 시작을 선생님 강의로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환경윤리까지밖에 못 들어서 9모 며칠 전 남은 6강을 몰아서 들어야하나 고민하던 중에,

선생님이 환경윤리 강의에서 "넓게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걸 확실히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바나나 강의 교재 한번 다시 복습하고, 앞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단원들 백지복습, 자료교재 복습하고 들어갔어요

(물론 저 말씀이 개념을 못 끝낸 제 상황에 적절치 않지만요 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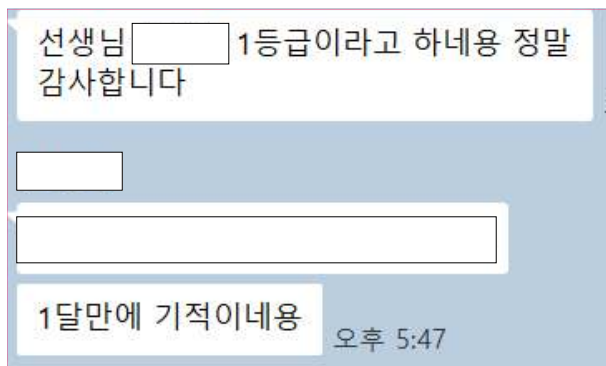
아직 강의를 못 들은 부분은 최대한 독해, 바나나, 앞에서 배운 개념 이용해서 풀 수 있었어요

또 마인드맵 필기법으로 필기하니까, 필기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박혀서 체계적으로 풀 수 있었고

선생님이 수업때 강조하셨던 부분대로 문제가 나오고 또 그대로 푸니까 풀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하 생략.....

[이런 경우도 있음]



간단 커리: 바나나 특강 → 개념 강의(필수 목록: 인터넷 공지사항) + 마더텅 + 문제 교재 + 자료 교재 킬러 사상이 자료 읽기(매일 2~3시간 정도씩 생운에 약 6주 정도 투자함)

개념 인강 필수 목록은 아래 글 참고

선생님 공지사항	
작성자	
Zola(생윤은 김준호)	생윤 <개념> 인강 필수 목록
Zola(생윤은 김준호)	교재 오타 수정(6월 24일 현재)



8월 신간
예사롭지 않은 생활과 윤리 모의고사
 저자 Zola
 출판 오르비박스 · 2025.08.18.
 도서 판매처 49

책소개

교재에 포함된 부록의 풀버전 해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부교재의 암호는 zolazola 입니다.

1. 시간 낭비 금지

정답률 85% 이상 문제 배제하였습니다. 8~9등급도 맞는 문제를 푸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2.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 새로운 선지 출제

원전 구석에 있는 지엽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3. 해설은 개념서처럼

칸트는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식의 쓸모없는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봉투 안에는 해설서가 아니라 확실한 개념서가

4. 문제를 맞히기 위한 모든 전략 제시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히기 위한 선지 접근법, 문제 풀이 전략, 답 도출 과정 등을 명시한 풀이 제공!

5. 쟁점형 문제, 평화통일 문제, 생명윤리(낙태 등등) 제외!

분배정의, 시민불복종, 자연과 윤리, 사회계약론 등의 킬러 문제를 대체용 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디테일을 담은 해설 부록을 추가하여 한 문제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전 이후에도 지루하지 않은 복습 문제와 해설 제공!

[간단 후기]

다. 이런 고퀄리티의 모의고사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팔리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시즌2도

★★★★★ 종이책 구매

어렵긴 하지만 문제 퀄리티도 뛰어나고 해설이 굉장히 자세해서 공부하기 좋아요 :)

.. 그리고 모의고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말을 선생님께 해도 되나 싶지만, 최근 모의고사,등등 여러 사설 모고를 풀었는데 풀고 나서 감동과 학습이 남는건 선생님 모고와 선생님 모고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